

### 저레의 통일속망을 돌어주시려고 (1)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많은 것이 사라지고 잊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허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저레의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고 조국통일위업 수행의 길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고결한 한평생이다.

나라의 분별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은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며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시려고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까지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신 민족의 아버지, 통일의 태양.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한없이 고귀한 유산이며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할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밑천이다.

본사편집부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10돌을 맞으며 아버지수령님께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바치신 불멸불후의 로고와 쌓아올리신 위대한 업적을 다시금 돌이켜본다.

\* \* \*

조국통일!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필생의 위업이었으며 절절한 념원이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분별된 민족의 아픔을 두고 가슴아파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 연안군 군당청사 뜰앞에 있는 자그마한 연못가에서 군내의 여러 가족들과 담화를 나누신적이 있었다. 이날 한 녀성으로부터 전쟁중에 서울에 사는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가 해산하려고 친정에 왔지만 군사분계선으로 하여 서울로 가는 길이 막혀 놓려앉아 살게 되었다는 대답을 들으신 수령님의 마음은 몹시도 아프시었다.

민족분별로 하여 겨레가 겪는 불행과 고통이 얼마나 가슴아프시었으면 아버지수령님께서 한참동안이나 아무 말씀도 없이 못가의 넓은잎정향나무꽃 한송이를 꺾어드리고 꽃잎을 한잎한잎 못의 수면 위에 떨어지시었으랴.

아버이수령님은 이처럼 겨레가 당하는 분별의 고통을 제일 가슴아파하신분이시었다.

나라가 통일되면 10년은 더 젊어질것같다고, 후대들에게 반드시 통일된 조국을 물려주자고 절절히 교시하시던 아버지수령님의 음성이 오늘날도 겨레의 귀전에 생생히 울려온다.

돌이켜보면 일찌기 14살 어린 나이에 조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은 맹세를 다지시며 압록강을 건너신 수령님께서 항일전의 그

#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여



나날 백두대령의 등진불을 추켜 드시고 비쳐보신 조국의 지도는 백두산에서 한산에 이르는 삼천리조국강산이었던 두동강이 난 조국이 아니었다.

아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이 있었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분별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불멸불후의 로고와 심혈을 강گری 바치시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청리조국강산이었던 두동강이 난 조국이 아니었다.

아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이 있었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분별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불멸불후의 로고와 심혈을 강گری 바치시었다.

해방직후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단선단정》이 조작되던 엄혹한 시기에 력사적인 남북조선청리조국강산이었던 두동강이 난 조국이 아니었다.

아버이수령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의 조선만이 있었다. 하기에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나라가 분별된 첫날부터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일관하게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불멸불후의 로고와 심혈을 강گری 바치시었다.

하나의 조선로선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조국통일의 기치로 되었다.

해방직후의 복잡다단한 정치정세속에서 극소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하면 남조선의 모든 정당, 사회단체대표들과 완고한 반공민족주의자들까지 참가한 폭넓은 민족적대회가 마련될수 있는것도, 한때 길을 잘못들었던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통일에국의 길에 들어설수 있는것도 하나의 조선로선을 추켜드시고 온 겨레를 통일애국의 길로 이끌어주신 아버지수령님의 한없이 넓은 품이 있었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의 근본립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3대원칙도,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강령인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과 통일국가의 전모와 실현방도를 밝힌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도 하나의 조선로선에 따른 통일의 대강, 헌장이다.

지금도 우리 겨레가 뜨겁게 새겨보는 아버지수령님의 통일친필인 《김일성 1994. 7. 7.》. 아버지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남기신 이 아홉

글자의 친필에는 시종일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견지하시며 조국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철세위인의 한평생이 그대로 어려있다.

언제인가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수령님의 한평생은 지난날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제외하면 해방된 조국땅에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전 생애를 바쳐오신 로고의 력사였다고 말할수 있다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시대에 수령님의 유훈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진정 아버지수령님은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밝혀주고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민족의 자애로운 아버지, 조국통일의 구성이시었다.

조국통일의 앞길에는 의연히 시련과 난관이 많이 가로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하나의 조선로선, 통일로선을 틀어쥐고 통일되고 부강번영한 민족의 밝은 레일을 확신하며 통일대진군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조국통일 유훈을 받들어 겨레의 통일투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전체 조선민족이 한강토에서 부락을 누릴 조국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밝아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박철남

## 미림의 행복과 꿈의 나라



평양시교외에 있는 미림승마구락부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화생활의 공간으로 되고있다.

지난 설명절과 3.8국제부녀절에도 이곳에서는 온 나라 인민의 관심속에 승마경기가 펼쳐졌다.

나 어린 소년들로부터 대학생,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동자, 농민, 사무원을 비롯하여 각계층 근로자들이 참가하여 승부를 겨룬 승마경기는 민족의 승리와 기쁨, 민족적정서와 화합을 가슴깊이 실감케 한 인상적인 경기였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말타기를 즐기며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우고 체력을 단련해왔다.

고조선사람들은 구리로 말자갈을 만들어 말을 부리었고 치레거리도 만들어 말을 장식하였다고 한다.

특히 고구려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말을 탈 줄 알았으며 인재를 뽑을 때도 말 탈 줄 알고 활을 쏠 줄 아는가 하나의 평가기준이 되었다.

《늙은 말이 길을 안다》, 《길이 멀면 말의 힘을 알고 날이 오르면 사람의 마음을 안다》, 《저는 말도 바른 길로 간다》와 같은 성구나 속담에는 말타기를 로동과 군사에 필요한 생활상요구로 여기고 살아온 우리 민족의 승마풍습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민족의 전통풍습인 승마운동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미림땅에 승마구락부를 세울것을 받기하시고 건설을 세심히 지도하시었다.

주제101(2012)년 11월 어느날 미림지구에 있는 인민군대의 기마훈련장에 나오신 경에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승마장의 위치가 참 좋다고, 승마운동을 하기에는 그저그만이라고 하시며 기마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체력단련

을 위한 승마구락부로 전변시키게 대하여 제의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새로 개건하게 되는 승마장이 미림지구에 있는것만큼 명칭을 미림승마구락부로 하자고 하시면서 승마구락부를 하루빨리 현대적으로 개건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자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크나큰 격정에 휩싸였다.

그 어느 나라의 군력사를 더듬어보아도 전투임무수행이나 군사전략상필요로 하여 인의 지역이나 대상이 군사기지로 넘어간 실례는 허다하지만 반대로 군사훈련기지를 인민의 복리를 위해 내주었다는 기록은 없었던것이다. 참으로 인민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세상을 좋은것이라하면 그 무엇이든 다 안겨주고싶어하시는 경에하는 원수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결심이였다.

경에하는 그의 발기와 깊은 관심속에 미림승마구락부는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7개월 남짓한 기간에 일매지게 떨어진 승마구로들과 승마봉사를 위한 여러가지 시설을 갖춘 종합적이고 현대적인 대중승마봉사기지로 훌륭히 건설되게 되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에 승마구락부들이 있지만 운영자금에 적지 않게 들기때문에 대체로 경마나 마술3종에 참가하는 말타기나 기수양성에 리용되고 부유층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유흥장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의 미림승마구락부는 근로자들이 누구나 승마운동을 즐기며 신체를 단련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대중승마봉사기지로 되고있다.

미림땅에 울리는 행복의 말발굽소리는 사회주의문명을 한껏 누리려는 인민의 웃음소리와 더불어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리설

주제81(1992)년 2월 16일이였다.

새날을 알리는 인민대학습당의 은은한 종소리가 울린다고 퍼그나 지났을 때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총련영화제작소에서 만들어 올린 《조선화면노래 반주곡》(제1집)을 보자주시었다.

민족적향취가 그대로 어려있는 흥에 겨운 민요가락, 배우들의 세련된 형상과 풍치수려한 조국의 명승지들이 배경으로 흘러가는 기쁜진화면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매 장면 하나하나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며 총련 문화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그것을 통해 광범한 제일동포들을 교양할 심원한 사색의 세계를 펼쳐주시었다.

단체제도 관람하시었다. 여러 행사가 끝난 다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일본 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을 만나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축하

관심을 가지고 보시며 총련 문화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그것을 통해 광범한 제일동포들을 교양할 심원한 사색의 세계를 펼쳐주시었다.

단체제도 관람하시었다. 여러 행사가 끝난 다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일본 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을 만나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축하

한밤을 꼬박 지새우신 그이께서는 곁사람인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과 같이 연회에도 참가하시고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하는 집

단체제도 관람하시었다. 여러 행사가 끝난 다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제일본 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을 만나 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축하

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시었다. 그리고 총련에서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애국사업에서 성과를 거두데 대하여 높이 평가 하시었다.

또한 자신께서 총련에서 만들어온 화면노래반주곡을 선택 4시까지 보고 너무 흥분하여 한잠도 자지 못하였다고, 화면노래반주곡을 만드느라고 수고를 한 총련영

화제작소 부부장이 이번엔 조국에 와서 오늘 진행한 집단체조행사를 촬영하였다고 하는데 그 동무에게 나의 강사를 전달하여주고 노력한 장을 수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화면노래반주곡을 만드는데 같이 동원되었던 총련일군들도 국가표창을 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오랜 시간 제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과 함께 계시면서 제일조선인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될 강령적과르치심을 주시었다.

본사기자

## 사랑의 자옥우에 꽃피는 일화 (2)

화가 김영일

**축복**

사랑이 넘쳐나는 총중마을 만복이 넘쳐나는 마을에 경사났네 원수님 다녀가신 뜻있는 집에서 아이의 돌생일을 맞았다네

은은한 달빛속의 별천지 포태망 미술가는 아름다운 전경 화폭에 담네

정말 멋있구나 포태산 뒤에 두고 일떠선 살림집들 보면 볼수록 장관이로구나 달빛이 내려앉아 금빛에 물든 모습

정말 멋있구나 대보름달 비치는 포태동모습 그 모습 담겨진 화판의 그림 두동실 달도 그림을 보며 못떠나는가

한낮에 봐도 아름다운 땅 한밤의 달빛에도 아름다운 땅 포태땅에 오셨던 우리 원수님 이 땅에 또다시 모시었으면

은은한 달빛속의 별천지 포태망 미술가는 아름다운 전경 화폭에 담네

정말 멋있구나 포태산 뒤에 두고 일떠선 살림집들 보면 볼수록 장관이로구나 달빛이 내려앉아 금빛에 물든 모습

정말 멋있구나 대보름달 비치는 포태동모습 그 모습 담겨진 화판의 그림 두동실 달도 그림을 보며 못떠나는가

한낮에 봐도 아름다운 땅 한밤의 달빛에도 아름다운 땅 포태땅에 오셨던 우리 원수님 이 땅에 또다시 모시었으면

그 소원을 안고 잠 못드는 사람들 그 소원으로 바라보는 정월대보름달 달아, 평양으로 가져든 포태동사람들이 소원 잊지 말고 전해다오



연필을 쥐면 박사가 되고 프락포느름이감 가지면 운전사 될거야 저저마다 가슴조이며 흥성이는 생일집 사람들 축복 알아듣기는 하는지 제법 꾸벅 절도 한다네

하나 아는가 철없는 아이야 온 동네의 생일축복에 앞서 너의 앞날 축복해주신 아버지 계시는줄 너의 볼 다정히 다독여주신 아버지의 그 따뜻한 손길 알고 있느냐

길가에 서서 집주인들 데려오라고 내가 문득 문을 두드리면 실례된다 하시던 다심한 그 사랑 집주인을 봤다고 환한 미소 지으며 들어서신 집이 바로 너의 집이란다

아이도 건강하게 잘 키우고 감자농사도 잘 짓고 행복하게 살기 바란다 하시던 원수님 그날의 그 축복을